주가	환율	금리
-6.86	-7.90	-0.04
1,413.73 (코스피지수)	916.40원 (원/달러)	4.73% (3년만기 국고채)

코스닥지수	614.99	(-4.88)
다우(5일)	12,331.60	(-47.75)
나스닥(5일)	2,245.2	(+3.99)
닛케이	16,371.28	(+105.52)
엔-달러 환율(도쿄 17:00기준)	114.83엔	(+0.20)
유로 달러 환율	1.3329달러	(+0.09)
3년만기 회사채	5.08%	(-0.03)
콜금리	4.48%	(+0.02)

사랑의 김장…"따듯한 겨울 보내세요"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용순·왼쪽 두번째)의 '사랑의 김장김치 보내기' 행사에 참여한 농협 직원 부인들과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 모임 임원 등 50여명이 6일 전남농협 2층 대회의실에서 김치를 담그고 있다. 이날 담근 2천㎏의 김치는 무안 에덴원, 광주 인애원, 별밭공동체 등에 전달됐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한국을 일으킨 엔지니어' 화천그룹 권 영 렬회장

"공작기계 살아야 강한 경제"

"성능이 우수하면서도 조작이 간편해 누구나 쉽게 배워 이용할 수 있는 이상적인 공작기계 보급에 몰두했을 뿐입니다. 제게는 과분한 상이죠."

광주 출신 권영렬(60) 화천그룹 회장이 지난 5일 서울대 공대가 개교 60주년을 맞아 한국공학한림원과 공동으로 수여하는 '한국을 일으킨 엔지니어 60인'상을 받았다.

권 회장은 부친인 고 권승관 전 회장에 이어 자본재산업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공작기계 제작과 보급에 평생을 받쳐온 업적을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했다는 게 관련업계의 평가다.

권 회장은 자본재산업의 열렬한 신봉자로 꼽힌다. 전자제품·식품·문구류 등 소비재와 달리 기계류, 부품·소재 등 자본재가 발달하지 않으면 국가경제의 발전은 단기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게 권 회장의 지론이다.

권 회장은 "현재 세계 10위권에 머물고 있는 한국의 공작기계 수출부문을 오는 2010년까지 5위권 안으로 진입시키자면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기계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주·직원 모두가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공작기계공업협회장인 권 회장은 지난 1977년 수치제어선반을 미국·독일·일본 등에 이어 세계 4번째로 개발했으며, 2002년 대한민국 기술대전 산업기술진흥유공자 부문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5~9인 영세사업장 는다

광주·전남 2,640개사…경기침체에 설비투자 미흡
중·대기업 감소… 갈수록 생산성 양극화 심화 우려

광주·전남지역을 비롯한 국내 영세 제조업체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생산성 양극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 조덕희 연구위원은 6일 '중소 제조기업의 영세화 현황과 대응' 보고서에서 1990년 이후 제조업 부문에서 중소 제조기업의 영세화가 급속히 진행됐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 부문에서 종업원 5~9인 규모의 영세 소기업 수는 지난 1990년 2만1천652개사로 총 사업체수의 31.4%였으나, 2004년에는 5만6천976개사로 전체의 절반(50.7%)을 넘어서는 등 급속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비해 중기업(종업원 50~299인)은 1990년 8천820개사(12.8%)에서 2004년 8천38개사(7.2%)로 감소했고, 대기업(300인이상) 수도 1990년 1천193개사(1.7%)에서 2004년에는 695개사(0.6%)로 대폭 줄었다.

영세 소기업은 제조업 종업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 61.7%에서 1996년 69.2%, 2004년 75.7% 등으로 증가했고, 부가가치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0년 44.3%에서 1996년 47.2%, 2004년 49.4% 등으로 확대됐다.

광주·전남의 경우 5~9인 규모의 영세 소기업 수는 통계를 내기 시작한 지난 1991년 1천444개사로 총 사업체의 39%였으나, 2004년에는 2천640개사로 전체의 54.3%로 늘어났다.

반면 중기업(50~299인)의 수는 1991년 306개(11%)에서 2004년 329개(6.7%)로 감소했고, 대기업(300인 이상)도 1991년 38개(1.3%)에서 2004년 31개(0.63%)로 줄었다.

광주·전남의 총 제조업체 수는 1991년 2천898개에서 2004년 4천859개로 1천961개(68%) 증가했다.

조 연구위원은 이같은 영세 소기업의 증가가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대기업의 구조조정과 벤처 붐에 따른 '다산다사(多產多死)'형 창업활동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또 장기간의 소비침체로 내수 의존도가 높은 중소 제조기업들이 설비투자를 활발히 하지 못한 것도 이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됐으며, 특히 영세 소기업이 새로운 투자나 사업의 확대에 소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중(中)기업으로의 성장이 정체되는 '좀비(Zombie)'기업화 현상이 나타난 데 따른 것이라고 조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지리산 한우펀드' 송아지 사육 시작

80억 규모 1,600마리

국내에서 처음 만들어진 '한우 펀드'의 송아지 사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농협은 7일 순천시 승주읍 도정리 순천축협 직영목장에서 조합 · 지방자치단체 · 증권사 ·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열고 이 펀드 투자 대상인 송아지의 입식(가축을 축사에 넣어 기르는 것)을 축하한다고 6일 밝혔다.

제 1호 한우 펀드는 80억원 규모로, 앞으로 약 1천600마리의 소가 사육될 예정이다.

농협, 순한 한우브랜드사업단과 고흥 · 곡성 · 구례 · 보성 · 순천 광양 · 여수 · 장흥 등 7개 축협은 송아지를 사들이고 키워 생후 30개월 정도가 되면 '지리산 순한 한우'라는 브랜드로 출하한다.

이 과정에서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재정과 투자 관련 부분을 지원하고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는 사육과 출하에 관한 모든 부분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1차 한우펀드는 농협 등 투자자에게 연 8%의 수익률을 보장해주며, 사육농가는 이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영농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2호 한우펀드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내년 6월께 출범하게 된다.

농협 관계자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한우 펀드 사업은 한우 농가의 규모를 키워 소득을 늘릴 뿐 아니라 도시와 농촌의 상생 모델을 찾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닭고기, 정부수매 소식에 회복세

이마트 등서 마리당 3,200~3,400원 판매

지난달 28일 익산시에서 두 번째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발병이 확인된 뒤 8일째 추가 확산 징후가 없는 가운데 닭고기 가격은 정부 수매 소식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6일 농림부와 계육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30일 각각 1㎏에 677원, 653원이던 닭고기 산지 가격은 지난 1일에는 663원으로 올랐고 4일 현재 728원대까지 회복했다.

소비자 가격은 AI 발생으로 소비가 줄어 들었으나 살처분 닭이 늘면서 AI 발생 전과 비교해 별 차이가 없는 수준까지 회복했다.

광주신세계 이마트와 롯데백화점 광주점, 홈플러스 동광주점의 판매 가격은 마리당 3천200~3천400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행사 상품으로 판매되는 닭의 경우 마리당 2천900원 안팎에서 팔리고 있다.

그러나 계란 가격은 지난달 29일 801원(10개)에서 30일 787원, 1일 782원, 4일 775원 등으로 계속 하락세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日 삼계탕 수입 재개… 화인코리아 '화색'

농림부가 5일 일본 정부가 조류 인플루엔자(AI) 발병을 이유로 지난달 22일부터 잠정 중단했던 우리나라 삼계탕 수입을 다시 허용키로 했다고 발표하면서 나주 화인코리아가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그동안 열처리된 삼계탕이 AI 전파와 관계가 없다는 과학적 근거와 국제기준 등을 제공하고 우리 정부의 철저한 방역조치를 설명한 결과 일본 정부가 수입재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24만8천410마리(86만2천897만불)을 수출했던 화인코리아는 내년 1월 25만5천590마리(88만7천838불), 2월 24만8천400마리(86만2천853불), 3월 24만8천400마리(86만2천863불) 등으로 안정적인 일본 수출량을 확보하게 됐다.

나원주 화인코리아 대표는 "지난해 매출 가운데 절반 이상이 수출쪽이었는데, 익산 AI사태로 위기를 맞았다가 다시 수출을 회복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신선육보다 삼계탕·파우치 등 가열제품 등을 내세워 일본 뿐만 아니라 미국시장까지 공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백화점 직원 매출 높으면 '스마일'

월별 친절도 선물시즌 9~12월 최고

일년 중 백화점 직원이 가장 친절해지는 시기는 언제일까. 6일 현대백화점이 최근 4년간 매장직원 '친절 점수'를 조사해 분석한 결과 월별 매출실적이 가장 높은 12월의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절점수는 고객을 가장 한 직원이 자사 매장에서 쇼핑을 하면서 판매사원의 표정과 안내 예절, 응대 태도, 대기 상태 등을 평가한 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산출하는 것으로 매장 개편 등이 이뤄지는 1월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5년에는 12월(86.2점), 11월(84.7점), 10월(83.5점), 6월(83.2점), 9월(82.3점) 등의 순으로 점수가 높았고 2004년에도 12월(83.7점), 11월(82.5점), 10월(81.3점), 9월(81.0점) 등으로 나타나 12월이 '가장 친절한 달'인 것으로 조사됐다.

2003년에도 12월,11월, 10월, 9월이 친절점수 상위 1~4위를 차지했고 11월까지 조사가 마무리된 올해 역시 11월(85.3점)과 10월(83.3점), 9월 · 5월(각각 82.9점) 순으로 나타나 추석과 가을 · 송년 세일, 크리스마스 선물마련 시즌이 이어지는 9~12월의 친절도가 높았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